

# ‘V13’ 꿈꾸는 KIA... 정규리그 출격 준비 완료



KIA타이거즈가 2026시즌 패넌트레이스 돌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KIA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6 KBO 시범경기에서 SSG랜더스, KT 위즈, NC다이노스, 한화이글스, 두산베어스, 삼성라이온즈와 각각 2연전을 치렀다. 그 결과 4승 2무 6패 승률 0.400을 기록하며 시범경기를 마감했다.

이범호 감독은 총 12경기에서 주전과 백업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1~4선발인 제인스 내일, 아담 윌러, 이의리, 양현종의 투구수와 구위를 체크했다. 5선발 후보인 김태형과 황동하 역시 선발 등판시키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게 했다. 타선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새 얼굴 찾기에 힘썼다. 이로써 마운드와 타선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든든한 백업 자원으로 팀 템스가 두터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시범경기 기간 가장 큰 성과는

## 2026 KBO 시범경기 4승 2무 6패 마감...최소 실책 기록 김범수·김시훈 등 불펜 활약...김호영 등 야수진 성과도

수비다. KIA는 지난 시즌 실책 123개로 리그 최다를 기록했다. 2024시즌 146개로 실책 1위를 차지했던 것에 이은 불명예다. 이에 이 감독은 올 시즌 스프링캠프부터 수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이번 시범경기에서는 단 3개의 실책으로 10개 팀 중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펜진의 활약 또한 눈에 띄었다. 먼저 이적생 김범수는 4경기 3.1이닝 3탈삼진 무실점으로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 한화에서 73경기 2승 1패 2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점 2.25(48이닝 12자책) 커리어하이로 작성해 FA 시장에 나왔다. 이후 KIA와 3년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 연봉 12억, 인센티브 3억)에 계약을 맺으면서 KIA로 이적

했다. 올 시즌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에서부터 패투를 펼친 김범수는 시범경기에서도 맹활약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그렸다.

지난해 NC와의 트레이드로 KIA에 합류한 김시훈 역시 호성적을 작성했다. 그는 이번 시범경기에서 5경기 5.2이닝 1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5차재 등판 동안 단 한 개의 안타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투였다.

이외에 정해영이 2경기 2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클로저'의 위엄을 뽐냈다.

타선에서도 다양한 선수들이 맹타를 휘둘렀다. 주장 나성범은 11경기 21타수 8안타 1홈

런 4타점 타율 0.381로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그동안 나성범이 시범경기에서 이토록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드물다. KIA로 이적한 2022년에는 12경기 31타수 10안타 2홈런 11타점 타율 0.323으로 활약했다. 이후 2023년에는 시범경기에서 나서지 않았다. 2024년에는 8경기 19타수 5안타 타율 0.263, 2025년에는 6경기 15타수 5안타 타율 0.333을 기록했다. 특히 정규 리그에서는 매년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지만, 올해는 시범경기부터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호영의 성장도 팀에게 큰 힘이 됐다. 그는 12경기에서 33타수 12안타 3타점 타율 0.364를 기록했다. 증견수 수비에서는 이미 리그 최상급에 위치해 있다. 그간 타격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타격을 완전히 정립한 모양새다. 주력 또한 훌륭하다. 박찬호의 이적으로 리드오프가 부재한 상황. 올해 정규리그에서는 그가 1

번 타자로 나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선우도 12경기 30타수 9안타 3타점 타율 0.300의 성적을 작성했다. 그는 올 시즌 1루와 우익수 수비를 책임져야 하는 선수다. 수비에서는 아직 불안한 모습이 있다. 다만 타격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했다. 지난해 커리어하이로 작성하며 시즌 중반 팀의 반등을 이끌기도 했다.

여기에 김도영(6경기 11타수 4안타 1타점 타율 0.364), 박민(12경기 36타수 13안타 2홈런 9타점 타율 0.361), 정현창(12경기 21타수 7안타 1홈런 6타점 타율 0.333) 등이 본격적인 시즌에 출격할 준비를 마쳤다.

시범경기 일정을 모두 마친 KIA는 오는 28일 인천에서 SSG랜더스와 KBO리그 개막전을 갖는다. 2024시즌 통합 우승 이후 고배를 마셨던 KIA가 올 시즌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정일선 광주은행장(왼쪽 여섯 번째)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24일 광주시체육회관 배드민턴 훈련장을 방문해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을 격려했다.

##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젊음의 패기로 AG 메달 도전”

### 정일선 은행장·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선수단 격려 방문 국기대표 진성익·조송현, 베트남 대회 남자·혼합복식 출격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이 올 시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게임' 메달을 목표로 힘찬 출발에 나섰다.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팀은 최근 정읍시에서 열린 '2026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일반부 복식에 출전한 조송현·진성익 조와 단식에 참가한 김대환이 각각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은 주중 목 복식에 이어 약점으로 꼽혔던 단식에서도 올 시즌 첫 메달을 획득하는 패기를 이뤘다. 이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메달을 목표로 국내·국제대회에서 활약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에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4일 광주체육회관 배드민턴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향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일선 은행장은 “광주 우수 선수들

이 지역의 명예를 빛내고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 배드민턴 쏘나우 육성에도 노력해줘서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 역시 “지역 기업인 광주은행이 체육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져준 데 감사하다. 앞으로 동반 성장하는 모범적인 스포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에 창단한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팀은 지역 출신 홍지훈 감독을 필두로 박문선(30), 김영철(29), 김대환(25), 진성익(24), 윤보(24), 조송현(23), 신수현(22), 양병견(21)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복식은 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재능기부를 비롯해 지

역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배드민턴 경기력 향상과 지역 체육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6 국가대표로 선발된 조송현·진성익 조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2026 베트남 국제캘린저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남자복식·혼합복식에 참가해 지역은 물론 한국을 빛낼 계획이다.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감독은 “전국에 남자팀 16곳이 있는데, 광주은행은 그 중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첫 대회까지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다. 젊음의 패기로 국내대회는 물론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표로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소년체육대회 임상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체육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 지역 우수선수의 타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배드민턴팀에는 조송현, 진성익, 김대환, 신수현, 양병견 선수 등 호남권 출신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영광서 열린다

###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서 10월 목표로 확정 도내 36개 스포츠클럽에서 1000여명 참가

전남도체육회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2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가 올해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2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도체육회관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를 열고 '제2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개최지로 영광군을 확정했다.

제2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는 2026년 하반기 개최(10월 예정)를 목표로 추진되며, 도내 공공 및 지정 스포츠클럽 36개소(종합형 19개, 한종목 17개소)에서 1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지난해 4000만원(도비)

보다 대폭 증액된 7000만원(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투입돼 내실이 더욱 다져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지난해 7월 14일 실시한 수요조사로 시작으로, 9월 영광군의 개최 희망 신청을 거쳐 이날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오는 4월 중에는 개최 시기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2026년 제1차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를 열고 '제2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개최지로 영광군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체육회는 종목단체 및 영광군과의 협업을 통해 경기 운영, 시설 확보, 참가 요강 수립 등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시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할 것”

### 시체육회, 생활체육대회 시작...45개 종목 130여개 대회 예정

광주 생활체육이 새 시즌을 맞아 가지개를 연다.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28일 '제9회 광주시합동생활체육복싱대회'를 시작으로 2026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광주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육상, 검도, 테니스 등 45개 종목에서 130여개의 전국 및 지역대회에 참가하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약 80개 대회는 광주에서 개최되며, 나머지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열려 광주 동호인들이 참가하게 된다. 특히 4월에는 배구, 족구, 배드민턴, 주

짓수, 탁구 등 13개 종목의 대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며 '가족사랑경기대회'와 '호남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5월과 6월에는 당구, 국악기공, 소프트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이 이어지며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시체육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종목의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 내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목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저변



지난해 열린 광주시마라톤대회.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가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